“노래 한 곡이 세상을 바꾸는 힘될 수 있지 않을까요”

“광주와 뜻깊은 연(緣)이 있습니다. 2004년에 3집 ‘미스티 문’(Misty Moon)을 발표하고 광주에서 독창회를 할 때 좌석이 모자라서 객석 통로에 신문지를 깔고 보셨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죠. 올해에는 광주 하계 U대회와 디자인 비엔날레 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했죠.”

팝페라테너 임형주(29)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오페라 아리아와 예술가곡, 올드팝, 뮤지컬, 재즈, 가요 등 장르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광주 공연을 앞둔 그를 만나 음악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31일 광주공연 앞둔 팝페라 테너 임형주

데뷔 17년 ‘세계 3대 팝페라 가수’
“동기들과 다른 길 선택 이른 성공”
“제 노래, 위로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정사상 최연소로 애국가를 선창한 후 임형주~하면 생각나는 노래중 하나가 애국가일 정도로 대표 히트곡이 돼버렸죠. 굉장히 감사하죠.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해외 독창회나 공연때 앙코르곡으로 ‘애국가’와 ‘아리랑’을 많이 부르는데 굉장히 뭉클해요.”

그는 12살에 데뷔한 후부터 자신의 이름 앞에 최초, 최연소, 수석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고 전 세계 무대에 올랐다. 국내무대 데뷔 17년, 국제무대 데뷔 12년을 맞은 올해에는 ‘세계 3대 팝페라테너’(미국 CNN iReport),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페라가수 TOP 5’(영국 BBC 뮤직매거진)로 선정될 정도로 세계적인 위상을 굳혔다. 지난달에는 모교인 이탈리아 로마 시립 예술대학 성악과 종신 명예교수로 임용됐다.

그가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팝페라테너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성공비결은 뭘까? 그는 미국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들려준다.

“‘…두 갈래 길이 숲 속으로 나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 시구가 딱인것 같아요. 동기들이 갔던 길(오페라)과 약간 다른 길(팝페라)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고민없이 선택을 했고,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이른 성공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86년 5월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3살 생일때 이모가 선물한 마리아 칼라스의 CD를 듣고 인생진로를 결정지었다. 그때의 일을 그는 자전적 에세이집 ‘임형주의 온리원’(Only One)에서 “들을 때마다 새롭게, 다르게 느껴지는 목소리, 마치 맑은 물에 잉크가 스며들 듯 그녀의 영혼이 내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묘사했다.

예술계중학교인 예원학교 성악과 졸업을 앞두고 그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01년 11월 홀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곳에서 만난 스승 웬디 호프만(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프리마돈나)·얼 바이스(루치아노 파바로티 수석 피아니스트) 부부는 임형주의 음악인생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다. 정통 성악가를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던 그는 스승과 여러 유명 음악인들의 권유로 ‘팝페라’라는 새로운 세계로 진로를 수정하게 된다.

2002년 5월에는 줄리아드 예비학교 오디션에서 그의 기량을 높이 평가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성악과에 수석 입학했고, 2003년 6월에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미국 데뷔 콘서트를 연다. 카네기홀 역사상 남성 음악가로는 세계 최연소 리사이틀이었다.

그가 인터뷰 중 많이 받는 질문은 부모의 교육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방목형 교육’이라고 답한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온리 원’에서 “꿈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의지를 더욱 북돋워 주신 분”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그의 노래 한 곡이 상심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위로했다. 작자 미상의 영문시에 일본 작곡가 아라이 만이 멜로디를 붙인 ‘천 개의 바람이 되어’(Thousand Winds)였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그는 이 노래를 ‘세월호 참사’ 추모곡으로 헌정하고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발생한 음원 수익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

“이 노래를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추모곡으로 부른 후 작곡가가 불허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어 버전을 못 불렀는데 2013년부터 작곡가에게 간곡하게 편지를 썼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어 버전을 사랑한다. 허락해달라’.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바로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너무나 안타까웠죠.”

예술이, 또는 음악 한 곡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는 노래 한 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답한다.

“제 노래가 부족하지만 위로가 된다면 음악가로서 바랄 게 없죠. 왜냐하면 음악가의 본질 중 하나가, 또 맡은 책무 중의 하나가 사람들을 위한 위안, 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임형주의 스펙트럼은 음악 외에도 문화예술사업과 글쓰기, 뮤직비디오 연출, 나눔·기부활동 등 폭넓고 다채롭다. 10년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에 친선대사로 승격됐다. 공연문의(1600-4534, 062-220-0558)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문화전당 예술·과학 융합콘서트

오늘 ‘빛, 色즉時空’…연극·강연 등 다채

윤성철 교수

김상욱 교수

예술·과학 융합콘서트 ‘빛, 色즉時空’ (빛, 색즉시공)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18일 오후 7시부터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화전당의 건축 개념인 ‘빛의 숲’에서 착안한 ‘빛’에 관한 과학과 예술을 렉처드라마, 렉처퍼포먼스, 렉처토크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펼쳐 놓는다.

1부에서는 배우들이 빛의 본질(파동 혹은 입자)을 연극 형태로 공연하며, 2부에서는 건축가이자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그룹 ‘이바이유 시티플래닝(IVAAIU City Planning)’이 ‘예술과 건축에서의 빛’에 관한 강연과 음악과 영상이 결합된 ‘오디오비쥬얼퍼포먼스’를 선보인다. 3부에서는 양자역학에 관해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김상욱 교수와 천문학에 관한 낭만적 멘트로 ‘과학계 성시경’이라 불리는 윤성철 교수가 강연과 토론을 통해 빛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안내한다. 공연은 무료. 자세한 내용은 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 참조. 문의 062-601-455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생중계

메가박스 광주점 1월1일…얀손스 지휘

‘영화관에서 보는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메가박스 광주점이 2016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인터미션 포함 145분)를 내년 1월 1일 오후 7시 생중계한다.

1939년부터 시작된 빈 필 신년음악회는 전 세계 90개국에 중계돼 5000만명이 넘는 클래식 팬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뛰어난 음향시설과 화려한 무대 장식 등이 돋보이는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펼쳐진다.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서곡, 왈츠, 행진곡 등이 연주되는 이번 공연의 지휘는 거장 마리스 얀손스<사진>가 2006년, 2012년에 이어 다시 한번 맡았으며 빈 소년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티켓 가격 3만원(청소년 50% 할인). 자세한 내용은 메가박스 홈페이지(www.megabox.co.kr) 및 모바일앱, ARS 1544-007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호진 광주남구합창단 지휘자

합창연합회 광주시지회 신임 회장 선출

박호진 광주남구합창단 지휘자가 16일 (사)한국합창총연합회 광주시지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KBS방송어린이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아버지합창단, CBS방송 광주여성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챔버싱어즈 지휘를 맡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맞아 합창으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개 합창단과 4000명의 합창단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타 지역 합창단과 교류, 사회적 약자와 실버세대까지 함께 참여하는 합창축제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造化秘傳 命學謬誼說 全 祝 發刊

총16편 259장 357절 외 의고15秘傳
(판형 19.6×26.6cm) 907p

命은 天地所賦 人所稟受요 學之爲言은 效라 萬象의 生死法則으로 엮어진 命理秘書가 國內는 물론 世界의 易醫學 硏究書이며 特히 韓醫學의 지침서라 할 정도로 病藥說化 收錄했고 배우고 연구하며 알고 사는 시대로 변천함에 無師自通의 書冊이 發行되었다.

- 天命의 품수대로 살아가는 인생 알아야 흉액을 피해간다.
- 時流따라 음양오행을 연구하는 시기 맞추어 명학유의설이 출간되었다.
- 현명한 후손이 나와야 가문 발전한다. 부부상합에서 출생이치 책속에 들어있다.
- 궁합이론과 질액 사주판단법이 자세히 수록되어 세계인이 읽어야 할 교서이다.
- 사상의학이나 오운육기의 어려운 학설보다 더 빨리 질액판단할 수 있는 비고의 서책이다.

1. 음양오행의 법칙이란 만상의 변화법칙이며 만물의 생사법칙의 근본이다.
2. 정신기의 법칙이란 천지도리 만상의 주체 순리의 본시이고 천지신명(三神)의 附이다.
3. 천신의 강약에 음은 순응하고 따르는 공간에 기의 유동함이 삼라만상의 생사법칙이다.
4. 천지신명 삼신의 시후와 남녀정신이 맞아야 입태됨을 논리했다(天命精神論)
5. 음양이치를 통달하면 도학의 경지를 넘어 현달한 선사일 것이다.(精神氣三神論)

◎ 本 命學謬誼說은 後日 道學者가 評價할 것이다.

一. 下元甲子시기 때 맞추어 보태하고 사주 맞추어 개복하기 때문에 이 책이 필요하다.
二. 격국을 도표하여 속견표화했고 十干의 강약과 통변의 이치를 알기쉽게 논리했고 복습고증 1040구절을말미에 정리한 신비의 책이다.
三. 六十甲子를 寅申巳亥柱 二十 子午卯酉柱 二十 辰戌丑未柱 二十 强弱구분 정리했다.
四. 甲子~癸亥까지 각주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시기 득실을 표시했다.
五. 十干을 十二支月 분석 조견표 과갑유준 상격 用 희기신 속견표 정리했다.

◎ 天神下降 地神順應 制化之中 多端人生
◎ 貧富得失 在於生剋 論命知理 强弱窮通
◎ 天地精神 年月日時 中和之勢 富貴無疑

남화정출판사 · 남화정역리원
編著者 역학강사 新知識人 鉒山 金 鎬 壎
주문전화 : 062)522-9653 농협계좌 : 302-8645-2254-81
◎ 造化秘評+命理秘訣+책값壹拾五萬원

※萬物은 陰陽五行法度에 依하여 天神에 順應하며 宇宙運行法則대로 天地神明의 精氣를 받아 順利의 天稟대로 自然攝理 변화에 따르기에 人命은 在天이다.